##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8~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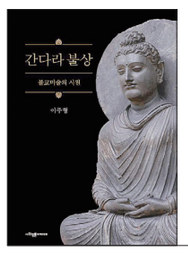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성철스님 화두참선법 | 원택 엮음 | 장경각 | 6 | 하나인 도리를 아느냐(관응큰스님 법어집) | 관응 | 새벽숲(효림) |
| 2 | 맨손으로 바람을 움켜쥐다(원철스님의 시선) | 원철 | 담앤북스 | 7 | 기도 내려놓기 | 법륜 | 정토 |
| 3 | 금강경과 마음공부 | 법상 | 무한 | 8 | 나를 살리는 음식들(선재스님의 인생 발효 에세이) | 선재 | 나무의마음 |
| 4 | 밀어 붙여라(K-Culture의정수 수불선사의 간화선) | 수불 | 도서출판해조음 | 9 |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108 필사 명상 | 법상 | 조계종출판사 |
| 5 | 법구경(진리의말씀) | 석지현 | 민족사 | 10 | 다람살라의 시간 | 청전 | 담앤북스 |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중론 | 용수 지음/청목 주석 | 오타쿠 | 6 | 연꽃법화경 | 원순 옮김 | 법공양 |
| 2 | 디가니까야(1) | 각묵 옮김 | 초기불전연구원 | 7 | 탁! 깨달음의 대화 | 법륜 | 정토출판 |
| 3 | 요가 디피카 | 아헹가/현천 역 | 선요가 | 8 |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 각묵 옮김 | 초기불전연구원 |
| 4 | 밀어 붙여라 | 수불 | 해조음 | 9 |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 월폴라라홀라/이승훈 | 경서원 |
| 5 | 십우도와 함께 걷는 선문답과 간화선 명상수행 | 인경 | 명상상담연구원 | 10 | 불교에 심취한 서양 작가들 | 딘 슬루이터 | 운주사 |

# "불상은 어디서 시작됐나"



간다라 불상: 불교미술의 시원
이주형 지음
사회평론아카데미
4만원

### 간다라 불상 역사·기원 규명
### 불교미술 권위자 이주형 교수
### 30년 연구 결실 집대성 역작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눈썹 사이의 백호, 기다란 귀, 턱수염 없이 콧수염만 기른 모습, 양쪽 어깨를 감싼 대의(大衣).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아시아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불상의 모습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이주형 서울대 명예교수(한국불교연구원장)의 신간 〈간다라 불상: 불교미술의 시원〉은 인류 최초로 붓다를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한 고대 간다라 지역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북서부 일대인 고대 간다라는 서양 고전미술과 인도 문화, 중앙아시아 문화가 교차하던 문명의 용광로였다. 이곳은 불상이 처음 제작되고 후대 불교권 불상의 표준적 틀이 형성된 곳이다. 이 교수가 책에 '불교미술의 시원'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유다. 이곳에서 확립된 도상과 양식은 불교권 전역으로 퍼져나가 오늘날 불상 전통의 뿌리가 됐다.

저자인 이주형 교수는 세계불교학회(IABS) 회장을 역임한 초기 불교미술 연구의 권위자다. 이 책은 저자가 30여 년간 세계 각지의 유적지와 박물관을 답사하고 1000여 점의 유물을 고증하며 일궈낸 역작이다. 단순히 고대 조각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간다라 불상의 발견과 연구사부터 조형적 특징, 도상체계, 종교적 기능, 불교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책은 간다라 불상을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커닝엄, 푸셰 등 개척자들의 연구를 통해 간다라 불상이 근대 학문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발견의 역사'를 짚은 뒤, 공간적·시간적 전개를 살핀다. 저자는 석조 불상 제작의 핵심 지역으로 페샤와르 분지를 지목한다. 불상의 시작 연대를 정확히 단언하긴 어렵지만, 서력기원 이전의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불삼존 비상. 간다라. 출토지 미상(페샤와르 분지로 추정). 높이 62㎝. 개인 소장.
사진 출처=Metropolitan Museum of Art

이어 불상의 형식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를 분석한다. 머리 위에 상투처럼 솟아오른 육계(肉髻)와 고수머리, 붓다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둥근 두광 등을 살핀다. 이 교수는 두광이 인도 전통에는 없던 요소이며, 헬레니즘과 더불어 서방에서 전해졌다고 파악한다. 양 어깨를 감싸는 대의 역시 당시 인도식 복식을 수용해 후대 불상의 표준 형식이 됐으며, '시무외인'이라 부르는 수인도 당시 보편적으로 쓰이던 손모양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불상의 실제 기능과 종교적 의미에 대한 탐구도 깊다. 저자는 봉헌 명문과 사원 구조, 감실형 사당 등을 분석해 간다라 불상이 예배·의식용보다는 신도들이 공덕을 쌓기 위해 바친 봉헌물에 가까웠음을 논증한다. 특히 저자는 사리를 봉안한 불상을 조명하며, 불상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아울러 간다라 초기에 제작된 보살이나 붓다의 도상 형식을 석가모니의 형상화로 봐도 좋다고 설명한다. 불상이 등장하기 이전인 무불상 시대에 과거칠불로 보이는 부조, 그리고 3세기 전반 붓다의 양옆에 두 보살이 자리 잡은 불삼존이 작은 비상 형태로 나타난 모습도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책에는 저자가 인도, 파키스탄, 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직접 촬영한 유물 사진을 자료 사진과 함께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말미에는 참고문헌, 찾아보기를 별도로 실었다. 불상의 역사와 불교미술의 기원을 정밀하게 규명하는 탐구서인 이 책은 관련 학자는 물론, 우리가 마주하는 불상의 뿌리를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독자의 지적 갈증을 채워줄 것이다.

# 인공지능도 명상을 할 수 있을까



종교AI의 철학
김영진 지음
동국대학교출판부
1만6000원

### 김영진 동국대 철학과 조교수
### 전문 학술지 발표 논문 엮어

AI도 인간처럼 명상을 하거나 종교성을 갖출 수 있을까. 〈종교 AI의 철학〉은 종교학과 철학, AI 연구를 융합해 이 질문을 고찰하는 학술서다. 김영진 동국대 철학과 조교수가 기존 발표 논문들을 수정·보완해 엮은 책으로, 명상·다도 사례를 포함해 총 6장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인간과 달리 AI가 딥러닝을 통한 지적 동기를 기반으로 감정과 신체 제약에서 벗어난 새로운 명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핵심은 명상의 '지향성'으로, 저자는 현재 AI 연구가 '채우는 지향성'에 치우쳐 있으나, 진정한 종교적 마음을 구현하려면 '비우는 지향성'까지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식을 제공하거나 의례를 대행하는 '약한 종교 AI'를 넘어, 종교적 주체가 되는 '강한 종교 AI'를 구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저자는 초월적 채움으로서의 능동적 기억과 초월적 비움으로서의 능동적 망각을 준자율적으로 학습하는 AI를 제안한다. 이것이 두 개념 사이의 중간 단계를 상정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저자는 AI가 차 맛을 향유하진 못하더라도 소통을 통한 이해, 치유, 배려라는 다도의 정신적 본질은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정신이 부재하는 시대'에 인간의 정신 고양과 각성을 돕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희정 기자

# 5·18의 길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다



오월, 소년의 기억을 걷다
이돈삼 지음
살림터
1만9000원

### 항쟁의 현장 따라가는 역사 순례
### 대흥사·김동수 열사 불교계 자취

스타벅스의 부적절한 마케팅과 배제고 야구부의 응원 논란 등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인 1987년 6월항쟁의 동력이 된 5·18은 우리가 결코 잊어선 안 될 역사다.

〈오월, 소년의 기억을 걷다〉는 5·18 역사해설사인 저자가 광주와 전남 곳곳에 남겨진 5·18 사적지를 따라 걸으며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책이다. 항쟁의 불씨가 시작된 전남대 정문부터 항쟁의 중심지였던 옛 전남도청, 분노한 시민과 계엄군이 충돌한 광주역 광장, 뜨거웠던 항쟁의 거리인 금남로, 헬기 사격이 이뤄진 전일빌딩 등을 생생하게 소개한다. 240여 장의 사진과 많은 이들의 증언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준다.

여기에 불자라면 빼놓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옛 대흥사 여관 터와 장성 임곡마을이 대표적이다.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와 함께 전남 서남부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공수부대의 학살과 광주의 항쟁 소식은 해남 읍내에도 삽시간에 퍼졌다. 해남 군민은 신군부 성토대회를 열고 거리 행진을 했고, 해남고 학생 수십 명도 시위에 동참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흥사에서 바자를 열고 있던 해남청년회의소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시위에 참여했다.

대흥사 앞 집단시설지구에선 시위대가 묵을 방을 내주었고, 유선여관 등의 상인들은 먹고 마실 거리를 주며 격려했다. 이곳에서 해남의 관문 우슬재를 넘어가던 시위대는 군인의 총격을 받았다. 대흥사 가는 길목에 5·18사적지 표지석이 있는 이유다.

장성 임곡마을은 김동수(1958~1980) 열사가 나고 자란 곳이다. 김동수 열사는 1978년 조선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남지부장을 역임하며 청년 불교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 5·18 당시 도청 안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염불을 올리는 등 자비행을 실천했으며, 5월 27일 새벽 계엄군 진압 과정에서 스물셋의 나이로 산화했다. 현재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돼 있다.

저자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열사들이 목숨을 맞바꿔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그날의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의 이야기로 되살리며 소중한 가치를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한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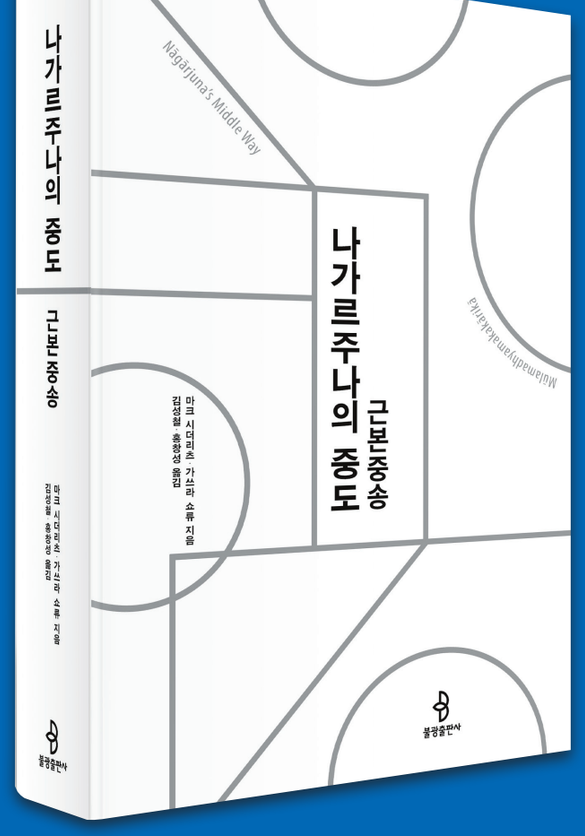

김동수 열사가 나고 자란 장성 임곡마을에 건립된 '김동수 기념관'. 생가의 창고를 고쳐 만들었다.
사진 제공=살림터


불교철학사의 중심에 선 단 하나의 책!

나가르주나(용수)의 사상을 가장 명확하게 밝혀낸 국제 불교학계 공인 결정판

나가르주나의 중도
근본중송

마크 시더리츠·가쓰라 쇼류 지음 | 김성철·홍창성 옮김
456쪽 | 32,000원




"전 세계가 찾아 읽는 『근본중송』 해설의 정점"

현대 불교철학계의 세계적인 두 거장
마크 시더리츠 · 가쓰라 쇼류 집필

✖

불교철학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두 석학
김성철 · 홍창성 완역

동아시아 불교 사상의 원류가 된
'공(空)'과 '중도(中道)'의 핵심을 읽다!

★★★ 불교철학을 공부하는 이라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책

★★★ 한 권의 책이 스승이 될 수 있다면, 이 책이 그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